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과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이 지난달 나란히 취임 100일을 맞았다. 광주체육회는 민선 2기 공약과제 16개 중 6개를 추진하거나 완료하는 등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송진호 도체육회장도 소통과 화합을 축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공약을 차곡차곡 실천하는 등 새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두 단체장은 생활·엘리트 체육간 상생과 화합을 축으로 시·도체육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다. 시·도체육회장의 취임 100일을 돌아본다.

광주·전남체육회장 취임 100일
변화와 혁신 새 바람 분다

스포츠클럽 확대…탄탄해진 저변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스포츠 선진도시 만들기 박차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눈길
전국체전 유치도 본격 추진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근대5종 경기장에서 광주 선수들과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전갑수 회장이 이끌고 있는 광주시체육회는 광주를 스포츠 선진도시로 끌어올리기 위해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2038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에 나선 게 게 대표적이다. 전 회장은 지난 3월 박영기 대구시체육회장 등과 함께 대한체육회를 방문해 아시안게임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스포츠 활성화를 바라는 광주 체육인들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광주 전국체전 유치도 본격화했다. 광주는 지난 2007년 10월 제88회 전국체전 개최 이래 종합 경기대회를 치르지 못했다. 시체육회는 체육 인프라 확충과 지방 체육발전을 위해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나서 광주시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최초로 5개구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83명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호봉제를 시행한 점도 눈길을 끈다. 생활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호봉제를 도입하고 급식비 등을 인상한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생활체육 서비스의 질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생활체육 인프라도 크게 개선됐다. 시체육회는 광주시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학교 체육시설을 시민에게 전면 개방토록 했다. 현재 초·중·고교 체육관 개방율이 97.7%에 육박하고 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학교·생활·전문체육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 점도 돋보인다. 스포츠클럽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바탕으로 기존 광주형 스포츠클럽을 확대하는 등 체육 생태계를 조성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지정스포츠클럽 공모에 3개 클럽이 추가 선정돼 모두 10개 스포츠클럽이 지정되는 성과를 냈다. '2023년 지정스포츠클럽 대상 특화프로그램 및 전문선수반 지원사업' 공모에서는 예산 9억400여만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전 회장은 민선 2기 16개 공약과제 중 6개를 추진하는 등 공약을 실천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학교운동부창단 지원과 체육인 일자리 창출 등 공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광주체육장학재단 설립, 대규모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과 재정자립을 위한 체육진흥 조례개정 등 과제도 추진한다.

전갑수 회장은 "공약사업이 모두 광주체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충실히 추진하겠다"며 "광주체육회장이기 이전에 체육단체, 체육인의 대변자로서 모든 체육인의 지혜와 힘을 모아 시민과 상생하는 스포츠문화 조성을 통해 광주를 스포츠 선진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실업팀 잇단 창단…활기띄는 체육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초-중-고-대-실업팀 연계 육성
지정스포츠클럽 45개 공모 선정
전국체전 계기 체육인프라 확충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이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출전한 전남 배구선수단을 격려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송진호 회장이 수장을 맡고 있는 전남도체육회가 '전남체육의 새로운 역사' 개척에 나섰다.

도체육회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스포츠문화, 체육행정, 체육복지 등 5개 핵심 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실천 로드맵을 이행하고 있다.

송 회장은 학교·전문·생활체육 부문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균형과 안배에 중심을 두고 집행부를 꾸렸다. 종목단체 회장 선임 등 분야별 전문가를 고루 등용해 소통을 바탕으로 한 변화와 혁신 의지를 담았다.

사업 수행을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각종 위원회도 증설했다. 국제스포츠문화교류위원회, 예산심의위원회, 스포츠클럽 육성위원회, 지역스포츠산업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 등 11개였던 위원회에 5개 위원회를 추가해 모두 16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전문체육 강화에서는 두드러진 결실을 봤다. ㈜서영 여자검도팀 등 실업팀을 창단한 데 이어 대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팀 창단 공모사업에서 11억 86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레슬링·수구(전남체육회), 육상(진도군), 복싱(목포시) 등 4개 실업팀을 출범시켰다. 전남체육의 숙원인 초-중-고-대-실업팀 연계육성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것이다.

생활체육 분야에서는 지정스포츠클럽 특화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총 45개 프로그램이 선정돼 국비 12억 2200만원을 확보했다. 도체육회는 또한 도민 1인 1운동 갖기 정착을 위해 생활체육 동호인단체 육성과 대회 지원,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스포츠클럽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도체육회는 오는 10월 15년만에 전남에서 개최되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전국종합체육대회준비단을 신설·운영하고 있다.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해 경기용기구 구입, 경기장 공·승인 업무 등에도 총력을 쏟고 있다.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계기로 전국·국제대회를 유치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전남 스포츠 경쟁력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송진호 회장은 "소통과 화합으로 체육인들과 함께 전남체육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며 "올해 현안을 비롯해 중·장기적 목표와 공약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회장은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임돼 지방체육 간 소통과 협력을 다지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FC 살아나는 공격축구…안방서 연승 도전

K리그1 3일 포항과 대결

득점 세리머니하는 아사니.

7경기 연속 무승 고리를 끊은 광주FC가 안방에서 연승에 도전한다.

광주는 3일 오후 7시 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포항스틸러스를 상대로 하나원큐 K리그1 2023 16라운드 홈경기를 갖는다.

잘 싸우고도 결과를 내지 못하면서 7경기 연속 무승에 그쳤던 광주는 지난 라운드 수원FC와의 원정길에서 펼쳐진 수중전에서 티모와 아사니의 득점으로 2-0 승리를 거뒀다.

광주는 앞선 서울이랜드와의 FA컵 16강전에서 1-0 승리를 거둔 뒤 기세를 이어 리그 경기에서도 기다렸던 승리의 만세 삼창을 외쳤다.

바닥을 찍고 다시 순위 싸움에 뛰어든 광주(5승 3무 7패·승점 18·8위)는 홈에서 진행되는 경기인 만큼 화끈한 공격으로 연승을 잇겠다는 각오다.

시즌 시작부터 보여준 광주의 공격 축구가 다시 빛을 발하고 있다.

광주는 앞선 수원FC 원정에서도 20개의 슈팅을 날리면서 상대를 압박했다. 유효슈팅도 14개를 기록하는 등 광주 공격 축구를 이어갔다. 또 인천전에 이어 수원FC 경기에서도 코너킥을 통해 골을 만들어내는 등 다양한 득점 루트로 승점 사냥을 재개했다.

이순민과 정호연이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 있고, 티모와 안영규는 탄탄한 수비로 무실점 승리를 견인했다. 무엇보다 득점력 고민에 빠졌던 광주에 골까지 선물하면서 맹활약하고 있다. 아사니도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시즌 5호골을 신고하는 등 다시 기지개를 켰다.

이번에 만나는 포항은 7승 6무 2패 승점 27점으로 4위에 자리하고 있다.

2위 FC서울과 승점 동률, 최근 FA컵과 전북전 승리를 포함해 최근 5연속 무패(3승 2무)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

또 김기동 감독이 구축한 조직력 축구에 제카, 오베르단, 김인성, 백성동, 김승대, 고영준, 이호재 등 강력한 스쿼드가 위력적이다.

상승세 길목에서 난적을 만나게 됐지만 '포항 징크스'는 없다.

광주는 지난 2021시즌 포항전 첫 승을 거두며 징크스를 깼고, 올 시즌 맞대결에서도 패배는 기록했지만 대등한 경기로 상대를 위협했다.

공격을 깨운 광주가 상승세를 이어 포항 사냥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패에서 벗어난 전남드래곤즈도 연승에 도전한다.

전남은 4일 오후 8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K리그2 2023 16라운드 김천상무와의 홈경기를 치른다.

앞서 전남은 천안시티FC와의 홈경기에서 경기 시작 18초 만에 터진 플라나의 골을 지키면서 2-0 승리를 거뒀다. 후반 28분에는 추상훈의 원더골도 터지면서 연패를 끊고 승점 3점을 챙겼다.

전남은 발디비아, 장성재, 노건우로 중원싸움을 하고 플라나, 하남을 앞세워 김천 골문을 겨냥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천의 벤치에 시선이 간다. 김천은 정정용 감독을 새로 선임하고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정정용 감독의 김천 데뷔전이 펼쳐지게 되면서 K리그 팬들의 눈길이 광양에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여자배구, 튀르키예에 0-3 완패

한국 여자 배구가 국제배구연맹(FIVB) 발리볼 네이션스리그(VNL) 첫판에서 튀르키예에 완패했다.

세사르 곤살레스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은 1일(한국시간) 튀르키예 안탈리아의 안탈리아 스포츠홀에서 막을 올린 VNL 1주 차 첫 경기에서 홈 코트의 튀르키예에 세트 점수 0-3(14-25 17-25 24-26)으로 패했다.

졌지만, 3세트에서 듀스 접전을 벌였고 블로킹 싸움에서도 4-6으로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

정지윤(현대건설)이 가로막기 1개 포함 10점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고, 주장 박정아(광주 AI페퍼스)도 6점을 거들었다.

공격 득점에서 28-51로 크게 뒤진 점은 숙제로 남았다. 튀르키예가 50% 넘는 공격 성공률을 보인 데 반해 우리나라의 성공률은 33%에 머물렀다. 이번 대회 3승을 목표로 내세운 한국은 2일 밤 11시 캐나다를 상대로 첫 승리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프로당구 PBA 11일 경주서 새 시즌 개막

출범 다섯 번째 시즌을 맞는 프로당구 PBA가 오는 11일 경주 블루원리조트에서 새 시즌 막을 올린다.

2023-2024시즌 프로당구 PBA는 개막전인 경주 블루원리조트 PBA-LPBA 챔피언십부터 내년 3월 PBA-LPBA 월드챔피언십까지 10개 대회가 9개월 동안 줄줄이 이어진다.

새 시즌 개막전인 경주 블루원리조트 챔피언십은 11일부터 이틀간 LPBA 예선을 거친 뒤 13일 오후 1시 개막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회에 들어간다. LPBA 결승전은 18일 오후 9시 30분, 남자부 결승은 19일 오후 10시에 시작한다.

이후 PBA는 내달 초 지자체와 함께 개최하는 투어를 준비하고 있다. 이어 7월 말 예정인 3차 투어부터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 자리한 PBA 전용 구장에서 치러진다.

9개 팀 체제로 늘어난 PBA 팀 리그는 5개 정규 라운드를 치른 뒤 포스트시즌을 맞이한다.

팀 리그는 8월 초 개막 예정이며, 2부(드림투어)와 3부(챌린지투어) 시즌 일정 역시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PBA는 개막을 앞두고 7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2023-2024시즌 미디어데이를 연다. 이번 시즌부터 프로 도전에 나선 '스페인 당구 전설' 다니엘 산체스, 이충복, 한지은을 비롯해 지난 시즌 PBA-LPBA 시즌 챔피언 조재호(NH농협카드)와 스롱 피아비(캄보디아·블루원리조트)가 새 시즌에 대한 각오와 목표를 밝힐 예정이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범죄도시3
2관	범죄도시3
3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4관	범죄도시3
5관	범죄도시3, 극장판 포켓몬스터DP : 아르세우스 초극의 시공으로
6관	범죄도시3
9관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 말없는 소녀
7관 씨네커플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스즈메의 문단속, 드림팰리스, 타임 이즈 업2
8관 씨네커플	인어공주, 라이드 온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 빈 심포니 & 장한나 내한공연
일시 : 2023-06-11(일) 17: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문의 : 062-613-8235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Dear Heart」
일시 : 2023-06-17(토) 17: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문의 : 062-613-8235